

물러날 곳 없는 광주FC, 울산서 뒤집기 가능할까

오늘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

3연전 마무리... 연패 설욕 절실
2점 차 이상 승리 시 결승 직행
이정호 감독은 체력 안배 예고



올해 코리아컵 우승 레이스에 도전하고 있는 광주FC가 울산HDFC를 상대로 짜릿한 뒤집기 한 판을 노린다. 준결승 1차전에서 0-1로 석패했던 만큼 2차전에서는 2점 차 이상 승리로 결승 티켓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과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을 치른다. 앞서 지난 21일 1차전에서 0-1로 석패한 광주는 무승부 또는 패배 시 탈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광주가 결승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준결승이 홈 앤드 어웨이 방식



광주FC가 27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FC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을 치른다. 광주 선수단이 지난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28라운드 홈경기에서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식으로 치러지지만 원정 다득점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양 팀이 1승 1패를 나눠 가질 경우 1차전과 2차전 골 득실을 합산해 우위를 가리기 때문이다.

준결승 1차전에서 1점 차 패배를 안은 광주는 2차전에서 1점 차 승리를 거둘 경우 연장 승부를 치러야 한다. 최근 주말과

주중, 3-4일 간격으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은 광주로서 120분 이상의 혈투는 답답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광주는 울산과 안방에서 연전을 치렀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지난 21일 준결승 1차전에서 0-1로 석패했고, 25일 K리그1 28라운드 맞대결 역시 0-1로 석

패했다.

양 팀이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체력을 안배한 만큼 이번 준결승 2차전 역시 진검 승부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코리아컵과 리그에서 선발 11명이 모두 달랐고, 울산은 야고와 엄원상, 김기희, 조현우 등 네 명만 연속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울산을 상대로 3연전을 모두 내주지 않겠다는 선수단의 의지가 강력하다. 올해 울산에게 2승을 선점한 뒤에 2패를 허용하며 동률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욕도 있다.

다만 광주는 다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25일 리그 울산전 직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선수층으로는 많이 버겁다"며 "세 대회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대회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가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광주의 믿음은 만만치 않다. 지난 21일 준결승 1차전에서 베카 미켈타제와

신창무, 정지훈, 이강현, 이도범, 김경재, 조성권 등 출전 기회가 적었던 자원들을 전면 배치해 울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측면에서 파괴력을 갖춘 정지훈의 복귀도 반가운 요소다. 정지훈은 지난 25일 리그 울산전 교체 명단에 포함되며 모처럼 얼굴을 비쳤고, 비록 교체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코리아컵에서 출격을 대기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책을 줄이는 것이다. 앞서 울산에게 두 골을 내주며 2패를 안았는데, 이 실점이 모두 상대의 전방 압박에서 비롯됐다. 김판곤 감독이 강한 압박으로 광주의 빌드업을 무력화했는데 세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한다.

실책을 줄이기 위해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김경민이 출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해 이준과 노희동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빌드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책을 범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 안정감을 주기 위해 수문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장애인 태극전사, 감동과 환희의 무대 '팡파르'

2024 파리 패럴림픽... 29일 개막
韓 금메달 5개 이상·20위권 목표



지난 11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에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2024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은 29일(한국 시간) 막을 올려 184개국 4400여 명의 선수들이 22개 종목에서 1647개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한국은 17개 종목에 8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2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중

합 순위 41위에 그쳤던 2020 도쿄 패럴림픽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속으로는 배드민턴과 보치아, 사격, 양궁, 육상, 조정, 탁구, 펜싱 등 8개 종목에 17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냈다. 감독 1명과 코치 3명, 보조 선수 1명, 로터 1명 등도 함께 파리로 향해 장애인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힘을 보탠다.

개회식은 29일 오전 3시 프랑스 파리 에투알 개선문에서 콩코르드 광장까지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야외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 선수단은 카누의 최용범(도원이앤씨)을 기수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주장으로 탁구의 김영건(광주광역시청)이 사이클

의 이도연(세종스포츠경영외과의원)과 함께 발탁돼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메달 사냥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보치아다. 한국은 보치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 서울 패럴림픽부터 2020 도쿄 패럴림픽까지 9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번 대회에서 10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남녀 개인전과 혼성 페어, 단체전 등 8개 세부 종목에 출전하는 가운데 강선희(한전KPS)는 정호원(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과 호흡을 맞추는 보치아 BC3 혼성 페어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최고령 선수인 양궁의 김옥금(광주광역시청)의 활약도 주목된다. 최연소 선수인 보치아의 서민규(안산시장장애인체육회)와 45살 차이인 김옥금은 불혹의 나이에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영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 등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했던 탁구에서도 다시 한번 쾌거를 노린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3관왕을 차지한 서수연(광주광역시청)은 Class2 여자 단식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제패에 도전한다.

한규빈 기자

'선발진 초토화' 이범호 고민은 "현재 진행형"

최지민·네일·장현식 동시 이탈
"다음 주 불펜 데이까지 고민"



KIA 타이거즈가 선발진은 물론 불펜진까지 투수 파트 전체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범호(사진) 감독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9월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3차전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도 해결을 해야 한다. 어떻게 다음 경기를 꾸려 나갈지 여러 생각 중이고,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하기에 여러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 24일 창원 NC전 도중 제임스 네일이 갑상선 수술을 받고 턱관절 골절을 당하며 선발진에 싱크홀이 생긴 상황이다. 월 크로우를 시작으로 이



리, 윤영철에 네일까지 이탈하며 개막 선발진 중앙 현종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더해 불펜진에서는 최지민과 장현식이 내복사근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 감독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다. 부상자들이 모두 투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수들이 더 힘을 내줘야 한다"며 "점수를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공격을 강조하겠다. 한두 점으로는 쉽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점수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히 하는 야구를 하고, 다시 공격형 팀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이면 확대 엔트리가 시행돼 다섯 명을 추가로 1군에 등록할 수 있지만 부상자가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이 감독의 고민은 더 깊다. 일단 이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네일과 장현식의 빈자리에

외야수 최형우와 투수 유지성을 불러 올렸다.

그는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를 많이 해봤던 선수들 위주로 올려야 한다. 야수는 지금 선수층으로 가고 투수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올릴 것 같다"고 예고했다.

이 감독은 한 달 남짓 남은 정규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과 대체 선발 기용, 불펜 데이 등 여러 방법을 두고 고민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확장 엔트리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주는 금요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상으로 비는 자리가 없다. 다음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선발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스럽다. 엔트리가 확장되기 때문에 불펜 데이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짧게 짧게 던져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9월 중순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전남 소속·출신 태극전사, 파리에 금의 환향

전남도·전남도체육회 환영식 개최
양궁 남수현·펜싱 최세빈 등 참석

세계인의 스포츠 대축제에서 대한민국과 전라도를 빛낸 태극전사들이 금의 환향했다. 10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7개를 사냥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친 만큼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전남도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6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2024 파리 올림픽에 전남 소속 또는 출신으로 출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함께 양궁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 사격 은메달리스트 조영재(국군체육부대), 펜싱 은메달리스트 최세빈(전남도청), 복싱 동메달리스트 임애지(화순군청), 이번 한국 선수단 최고참 이보나(부산광역시청) 등이 참석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과 수영 김민섭(독도스포츠단)은 개

인 일정,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정나은(화순군청)은 2024 코리아 오픈 출전, 근대5종 서장완과 육상 세단뛰기 김장우(이상 국군체육부대)는 육군훈련소 입소로 불참해 가족들이 대신 자리했다.

전남도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이날 환영식에서 도민들의 축하 및 응원 영상 상영과 함께 선수들의 올림픽 경험담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다. 또 이들에게 공로패 증정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팬미팅과 오찬도 진행했다. 전남 소속 및 출신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한국은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8위에 오른 바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날 환영식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전라도를 대표해 위상을 높여준 선수와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전을 힘껏 응원하고,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